

문 대통령 “역사 성찰하며 성숙한 대응”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인류 보편 가치 잊지 않아”

“광복 후 미래 향해 달려와... 일본 조치, 참으로 실망”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한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역사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일본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인류보편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틀 후면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한다”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 이기에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또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왔고,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

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됐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에 원천이 돼주는 독립유공자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며 “독립유공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 가족 자택을 방문하는 보훈 복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좋아들 하신다고 들었다”며 “유족 한 분께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해외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역사에서 공지를 느끼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보훈에 있다”며 “정부는 항상 존경심을 담아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독립유공자·후손들과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업

17일 영호남 평화 콘서트... 18일 하의도서 추모식

전남도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영호남의 예술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김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고 영호남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영호남 평화 콘서트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연다.

18일에는 신안 하의도 김 전 대통령 생

가에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돌아보기 위한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10월에는 김대중 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도 열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하의도에서 김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평화 캠프를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추모 전시회, 국내 학술교류를 위한 ‘김대중 민주평화 아카데미’, 도내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평화 비전 스킨’도 마련한다.

전국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리더십 증진을 위한 ‘김대중 글로벌 리더십 합참 경진대회’,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등도 선보인다. /김영민 기자

국회, 국정감사 일정 제시 9월 30일~10월 18일까지

국회 사무처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 사무처가 제시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주승용, 전라선 KTX 주말 4회 증편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은 오는 9월 20일 전라선 KTX가 주말에만 4회 증편 운행 된다고 13일 밝혔다.

주 부의장 “그동안 코레일에 여수 관광객 급증으로 전라선 KTX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구 했는데, 코레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말 만이라도 증편 운행을 확정했다”면서 “코레일은 일단 8월 20일부터 예매를 시작해서 9월 20일에 첫 증편 운행되고, 금·토 용산에서 오후 8시 35분, 토·일 행신에서 오후 12시 10분, 여수에서는 토·일에 오전 8시 2분과 오후 7시 32분에 운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부의장에 따르면, 전라선 용산-여수간 KTX는 2011년 10월 개통 초기 주말기준 1일 10회에서 2019년 7월 현재 28회로 증편 됐고, 9월부터 주말 32회로 추가 증편 예정이다. 또한 2019년 일평균



이용객은 1만7,919명으로 이는 2016년 1만626명 보다 7,293명(68.6%)이 증가 됐다.

주 부의장은 “용산-여수간 전라선 KTX 주말 증편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여전히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여수에서 용산역에 도착해서 강남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지역민들과 강남지역에서 여수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 및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서역에서도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황주홍 의원 양봉협의회 감사패 받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9일 오전 장흥사무소에서 황협주 전국양봉협회장과 김용래 양봉협회 조합장 및 4개군 회장(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양봉관계자 20여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일 국회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하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4만 양봉인들의 뜻을 모아 제정법 통과와 쾌거를 이룬 것이다.

양봉산업 관계자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황주홍 의원은 “양봉산업육성법은 지난



8월 2일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02명 중 199명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며 “이는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꿀벌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4년 뒤 인류는 사라질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양봉산업은 농촌, 농업의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고 앞으로 농가소득의 현실적 증대를 위해 밀원수 보호 및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서삼석,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서지역 등 농어촌 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 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 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



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지역어인의 경우에도 참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 앞면 15미터 장성 IC, 장성호(담)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물류창고.사무실

- ① 300평 - (평당 80만원) - 매가 2억4천만원(용1억5천)
- ② 1,080평 - (평당 70만원) - 매가 7억5천만원(용4억5천)

- ① 장성을 용강리·장성담 옆 (국도도로접함) 1,370평 → 매가가 1억 5천만
- ② 장성을 덕진리·장성담 위 (도로접함) 500평 → 매가가 2억5천만
- ③ 장성을 남면·첨단지구5분 (도로접함) 1,090평 → 매가가 3억5천만
- ④ 담양군 금성면 (메타세쿼이아부근 도로접) 1,000평 → 매가가 5억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 대형학원, 한의원, 스포츠, 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전체평수 - 300평)

■ 보증금 5천만 월 400만 임대가능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7억5천

- ① 상가매매 - 상무지구 메가박스 앞 (7층 중 6층) 보 3천 월 150만(임대가능) ▶ 매가가 2억8천만 (용1억4천8백)
- ② 첨단지구 10층중10층 (상가.사무실) 보 1천 월50만 (임대가능) ▶ 매가 8천만 (용 3천만)
- ③ 원룸매매 (현대아파트 입구 앞)용량C1분, 전대5분 토지 80평 건 165평 (원룸9개, 1.5룸6개)보3천 월수익 500만 ▶매가 7억
- ④ 고시원매매 - 조대 후문 3분 토 79평, 건 159평 룠 50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6억8천만

경매 교육 [기초, 특수] 전문

★ 경매교육 특수반 모집★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수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연필매)

※ 10억짜리 부동산을 3억에 가능

경매교육 하면서 (실전) 바로 (수익창출) 합니다.

1. 감정이 2~3회 유찰 물건 (절반가격)
2.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리모델링
 - ① 초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무료교육
 - ② 중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매주 (월, 수, 토) 개강
※ 사무실 쓰면서 전문 직업 하실 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